



정답과 해설

1. 나를 키우는 힘

(1) 관점과 형식 파악하며 읽기

시험에 꼭! 나오는 학습 활동

4~5쪽

- 01 ③ 02 ⑤ 03 ② 04 ⑤ 05 ④
06 ③ 07 ② 08 ⑤

- 01 제시된 주장은 정보화를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③은 정보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다.
- 02 글 1과 글 2는 모두 설득을 목적으로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밝혀 쓴 논설문이다.
- 03 글 3은 카드 뉴스 형식의 글로, 내용이 간결하게 제시되어 있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장을 펼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 04 글 3은 짧은 글을 시각 자료 위에 얹어 한 장의 카드를 만들고, 이러한 카드를 연속되게 배치하여 전체 내용을 구성하는 카드 뉴스 형식이다.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내용을 전개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 05 글 3은 사이버 범죄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이버 범죄의 증가라는 정보화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글쓴이의 관점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 06 대상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07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을 때에는 각 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고, 각 글에 드러난 관점의 타당성과 형식의 적절성을 판단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글에 나타난 정보의 객관성을 판단하며 읽는 것은 설명문을 읽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글쓴이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긴 논설문을 비교하며 읽을 때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 08 제시문은 이슬람의 '히잡 문화'를 설명한 글이다. ①~④는 보편적인 가치에 비추어 히잡 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 ⑤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하나의 문화로서 히잡 문화를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또! 나오는 문제

6~7쪽

- 01 ⑤ 02 ⑤ 03 ④ 04 위대한 혁명
05 ② 06 ② 07 ③

- 01 이 글은 주제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혀 쓴 논설문이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풀어 쓴 글은 설명문이다. ①, ③, ④는 논설문의 특징이며, ②는 논설문과 설명문의 공통된 특징이다.
- 02 글쓴이는 정보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정보화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3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정보화가 아니라 산업화이다.
- 04 (가)에서 글쓴이는 정보화를 가리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은 가장 위대한 혁명'이라고 평가하였다.
- 05 (나)의 '특히 관공서나 병원, 음식점 등에 ~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에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06 이 글의 글쓴이는 정보화가 빈부 격차를 더 심화시킨다고 하였으므로 ②는 이 글을 읽고 난 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다.
- 07 <보기>와 같은 카드 뉴스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인상적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쉽게 유발할 수 있고 관심을 효과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다.

튼튼! 만점 도전 문제

8~9쪽

- 01 ⑤ 02 ② 03 (가)는 정보화를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나)는 정보화를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04 ② 05 ① 06 ④ 07 ③ 08 ②

- 01 (나)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알고 싶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보화의 특징이 아니다.
- 02 정보화의 진행 속도에 관한 언급은 드러나 있지 않다.
- 03 정보화의 영향으로 (가)는 경제적·문화적 격차가 완화될 것이라고 보았고, (나)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 04 (가)는 정보화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과 ㉡이, (나)는 정보화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과 ㉣이 해당한다.
- 05 (가)는 정보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논설문이고, (나)는 정보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카드 뉴스이며, (다)는 정보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논설문이다.
- 06 동일한 화제에 대해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독자가 글을 읽는 상황이나 매체를 다르게 가정한다면 각각에 어울리는 형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
- 07 (나)는 카드 뉴스의 형식으로, 간결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글에 비해 빠르게 핵심 내용을 전달할 수 있으나 내용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 08 (다)에서는 정보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다)의 앞에는 정보화가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시험에 꼭! 나오는 서술형

10~11쪽

- 01 (가)의 글쓴이는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정보화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의 글쓴이는 정보화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과 국가, 사회가 모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02 (가)와 (나)는 논설문으로, 정보화라는 공통된 화제에 대해 (가)에는 긍정적인 관점이, (나)에는 부정적인 관점이 드러나 있다.
- 03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여 정보화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글쓴이의 관점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 04 논설문 형식으로 내용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주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글의 형식을 적절하게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 05 계층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문화적 소양을 누리고 즐길 수 있게 되었다.
- 06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빈부의 차이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이 점차 심화된다.
- 07 (가)와 (나)는 모두 정보화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가)는 논설문의 형식으로, (나)는 카드 뉴스의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 08 좀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내용을 전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을 자세하게 할 수 있다. 중심 내용과 관련된 전후 맥락을 독자에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다.
- 09 정보화의 발전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10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인상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간결한 표현으로 핵심 내용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 11 '카드 뉴스'는 내용이 간결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화제에 대해 배경지식이 적은 독자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나)와 같이 심도 있는 관점을 드러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형식이다.
- 12 대상의 다양한 면을 이해할 수 있으며, 대상에 대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다.

- 01 (가)의 주장은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드러나 있다. (나)의 주장은 두 번째 문단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
- 02 (가)와 (나)는 모두 정보화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밝힌 논설문이지만, 정보화를 바라보는 두 글쓴이의 관점은 상반된다.
- 03 (가)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관점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 04 (나)는 논설문의 일반적인 구성에 따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으므로 형식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05 (가)에서는 정보화가 문화의 보편화를 빠르게 진전시켜 누구나 동등하게 문화적 소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았다.
- 06 (나)에서는 정보의 양이나 가치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정보의 양과 질에 비례하여 부가 가치가 증대되기 때문에 정보 격차는 빈부의 차이를 더욱 벌려 놓아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보았다.
- 07 (가)는 정보화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드러내는 논설문이고, (나)는 정보화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드러내는 카드 뉴스이다.
- 08 (가)는 논설문으로 (나)에 비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내용을 전개할 수 있으며, 줄글 형태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 중심 내용과 관련된 전후 맥락을 독자에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다.
- 09 카드의 마지막 장에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나 있다.
- 10 (나)는 카드 뉴스이다. 카드 뉴스는 핵심 내용을 시각 자료와 함께 간략히 제시하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간결하면서도 인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11 카드 뉴스는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주장을 전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 12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비교하며 읽으면 대상의 다양한 면을 이해할 수 있고, 대상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볼 수 있다. 또한 대상에 대해 보다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다.

(2)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기

시험에 꼭! 나오는 학습 활동

13쪽

01 ③ 02 ① 03 ①, ③ 04 ⑤

- 01 글을 읽을 때에는 글을 읽는 목적을 고려하여 그에 어울리는 읽기 방법을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 02 읽기 목적을 확인하는 것은 '읽기 전' 단계에서 점검할 내용이다.
- 03 글을 읽은 후에는 글의 주제와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 04 읽기 목적을 고려할 때 이중섭의 그림에서 '소'가 갖는 의미를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에서 이중섭이 그린 것이 현실의 평범한 소가 아닌 것은 맞지만 그것이 미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것인지 알 수 없다. ④에서 이중섭은 현실의 절망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분노하는 소에 투영하였다.

또또! 나오는 문제

14~15쪽

01 ⑤ 02 ③ 03 ㉞: 목적, ㉟: 방법 04 「알타미라 동굴 벽화」와 「라스코 동굴 벽화」에는 들소가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는 구석기인들이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그린 것이다. 05 ③
06 ④ 07 ② 08 밀레는 소가 농촌에서 소중한 재산(존재)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01 (다)에 따르면 구석기인들이 동굴 벽면에 들소를 그린 것은 일종의 의식 행위를 위한 것으로,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 02 읽기 목적을 고려해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읽기 후의 단계에서 점검할 내용이다.
- 03 글을 읽을 때에는 글 읽기 목적을 고려해서 그에 어울리는 읽기 방법을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 04 성진이의 읽기 목적이 미술 작품 속의 소가 어떤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므로, (다)에 등장한 미술 작품 속 소의 의미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 05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읽기 후 점검 내용이다.

- 06 (가)에 따르면 원시인들은 힘이 센 들소를 좋은 사냥감으로 여겨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들소를 그린 것이지 들소를 숭배하여 그린 것은 아니다.
- 07 이 글에서 소가 농촌 문화의 다양성을 의미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①은 (나)에서, ③은 (다)에서, ④는 (가)에서, ⑤는 (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8 제시된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이다. 밀레는 송아지를 들것에 태워 데려오는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소가 소중한 존재였음을 표현하였다.

튼튼! 만점 도전 문제

16~17쪽

01 ④ 02 ① 03 (나): 최고 재산(중요한 존재), (다): 한민족의 비극과 자신이 겪은 고통의 감정(굴복하지 않겠다는 예술가의 의지)
04 ⑤ 05 ② 06 소를 소재로 한 다양한 미술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문화의 다양성과 인식의 다층성을 이해하는 즐거움을 느껴 보게 하기 위한 의도로 글을 썼다. 07 ③

- 01 미술사에서 소가 차지하는 비중에 관한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 02 글의 주제를 정리하는 것은 '읽기 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점검 내용이다. 나머지는 모두 '읽기 중'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점검 내용이다.
- 03 (나)에서는 소가 농가의 소중한 재산이었음을 설명하고 있고, (다)에서는 소에 이중섭이 겪은 현실의 비극과 그로 인한 내면의 아픔이 형상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04 (가)는 책의 차례로, 읽기 전 단계에서는 제목이나 차례 등을 활용해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①, ②, ④는 읽기 후, ③은 읽기 중 점검 내용으로 볼 수 있다.
- 05 (다)에 따르면 피카소는 소의 형상을 한 자전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폐자전거를 활용해 소의 머리 형상을 만들었다.
- 06 (라)의 마지막 문장에 글쓴이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07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읽으면 글을 읽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글을 읽는 목적, 글의 종류, 글을 읽는 상황 등에 따라 글을 보다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다.

- 01 첫 번째 문단은 '원시인들은 왜 동굴에 소를 그렸을까?', 두 번째 문단은 '원시인들은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소를 그렸다.'로 정리할 수 있다.
- 02 '이 문단에서 생략되거나 압축된 내용은 무엇일까?', '명에는 어떻게 생긴 도구일까?'
- 03 피카소는 피자전거로 소의 머리를 표현함으로써 미술 작품은 비싼 재료를 사용해 만들어진다는 고정 관념을 깨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 04 이 글의 주제는 '미술 작품 속에 표현된 소의 다양한 의미'이다.
- 05 자신의 읽기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제목이나 차례, 삽화 등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한다.
- 06 글을 읽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글을 읽는 목적, 글의 종류, 글을 읽는 상황 등에 따라 글을 보다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다.

- 01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읽기 중 단계의 점검 내용이다.
- 02 '읽기 전에 예측했던 내용과 실제 내용을 비교해 볼까?',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무엇일까?', '이 부분의 문단별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 등도 '읽기 중' 단계의 점검 내용이다.
- 03 읽기 목적이 미술 작품 속 소의 의미를 소개하는 것이므로 피카소의 작품에서 소가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 04 글의 주제를 정리하는 것은 읽기 후 단계의 점검 내용으로, (가)와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할 수 있다.
- 05 '읽기 전' 과정에서는 읽기 목적 확인하기, 제목, 차례 등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 예측하기 등을 점검해야 한다.
- 06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읽으면 글을 보다 효율적으로 읽어 글을 읽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대단원 종합 문제

- 01 ㉔ 02 (가)에는 정보화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이 드러나 있지만, (나)에는 정보화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드러나 있다. 03 ㉕
- 04 ㉖:관점, ㉗:형식 05 ㉘ 06 ㉙ 07 긍정적 관점: (나), (라) / 부정적 관점: (가), (다), (마) 08 ㉚ 09 ㉛
- 10 ㉜ 11 (나)의 앞, <보기>는 김홍도의 그림이 한국의 농촌에서 소가 소중한 재산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나)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2 ㉝

- 01 (가)의 '편리함과 그에 따른 효율성이 극대화된 사회'라는 진술과 (나)의 '현재 우리는 정보화의 영향으로 생활의 편리를 누리게 되었지만'이라는 진술을 통해 (가)와 (나) 모두 정보화가 생활을 편리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2 (가)와 (나)는 모두 정보화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가)의 글쓴이는 정보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반면 (나)의 글쓴이는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 03 (다)는 장면을 분할해서 내용을 나누어 전달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장면 사이에 생략된 내용이 많아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내용을 전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 04 (나)와 (다)는 정보화라는 동일한 화제에 대하여 둘 다 부정적인 관점을 보이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형식은 논설문과 카드 뉴스로 다르다.
- 05 관점과 형식이 다른 글을 비교하며 읽는 것과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06 (다)는 정보화의 영향으로 비대면 의사소통이 증가하여 인간 소외나 비도덕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07 (나), (라)는 정보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가), (다), (마)는 정보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 08 (나)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세계 각지의 공연이나 다른 나라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정보화가 문화의 보편화에 기여하였다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09 <보기>는 정보화의 발전으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정보화의 발전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를 뒷받침하기에 가장 적절하다.
- 10 (다)에서 이중섭은 현실의 절망과 불행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소에 투영했다고 하였으므로 좌절감을 형상화하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11 (나)의 첫 문장을 통해 앞에서 한국의 농촌에서 소가 소중한 재산이었음을 보여 주는 그림을 다루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 12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읽기 후 점검 내용에 해당한다.

2. 세상을 비추는 문학과 언어

(1) 작품 속 사회·문화적 배경

시험에 **꼭!** 나오는 학습 활동

24~25쪽

01 (다) - (가) - (마) - (라) - (나) 02 ⑤ 03 ②
04 ① 05 ⑤ 06 ④ 07 ⑤

- 01 소설은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구성 단계를 지닌다. (가)는 전개, (나)는 결말, (다)는 발단, (라)는 절정, (마)는 위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02 명선이는 피란길에서 비행기 공습을 만났을 때 어머니의 시체 밑에 깔렸던 기억 때문에 다른 사람 밑에 깔리면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 엄청난 힘을 발휘하여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 03 ‘나’의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들은 명선이의 금반지를 차지하려 혈안이 되었는데, 이는 전쟁으로 먹고살기 어려워지자 인심이 각박해지고 탐욕적으로 변한 것이다.
- 04 남녀 간에 엄격하게 내외하는 풍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남자아이로 알고 있던 명선이를 여자인 정남이와 같은 방을 쓰게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 05 작가는 전쟁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거나 비인간적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비극성을 알리려고 한 것이다.
- 06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하면 작품을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작품 전체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 07 서양 문화로 볼 수 있는 야구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서양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나오는 문제

26~29쪽

01 ② 02 ② 03 포성, 피란민 04 ①
05 ① 06 ① 07 ④ 08 ③ 09 ⑤
10 피란길에서 비행기 공습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체 밑에 깔렸던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11 ③ 12 ⑤ 13 금반지
14 ④ 15 아버지로 하여금 명선이가 금반지를 더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한다. 16 ③ 17 ② 18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강인한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명선이를 상징한다. 19 ④

- 01 소설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작가가 허구적으로 꾸며 낸 이야기 기이므로 꾸며 낸 부분을 파악하며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허구 속에 반영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파악하며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 02 이 글에서는 인물과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 주로 나타난다.
- 03 포성, 피란민 등의 표현을 통해 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4 이 글은 작중 인물인 ‘나’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주인공인 명선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다.
- 05 ㉠은 녀석이 여자아이임을 암시하는 것이지 배고픔과는 무관하다.
- 06 소설은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바탕으로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재창조한 허구이다.
- 07 (가)에서 ‘나’의 부모님은 명선이를 머슴처럼 부리려 하고 있고, (라)에서도 명선이를 내쫓을 궁리를 하는 것으로 보아 피란민을 달가워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 08 서술자를 순진한 어린아이로 설정하여 어른들의 탐욕과 비인간성을 부각함으로써 전쟁의 비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09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 10 (다)에 명선이가 ㉠과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 11 ‘나’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명선이를 감시했지만 금반지를 숨긴 곳을 묻지 못했다.
- 12 명선이에게 금반지를 받고 다그치는 모습이나 명선이가 가진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 명선이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통해 어머니가 계산적이고 속물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13 명선이가 생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금반지로 인해 명선 이와 어른들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
- 14 사투리의 사용과 인물의 성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 글에 나타난 어른들의 성격을 순박하다고 볼 수도 없다.
- 15 개괘의 내용을 읽은 후 명선이를 보호하고 감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는 개괘를 보고 명선이에게 금반지가 더 있을 것임을 확신했음을 알 수 있다.
- 16 작가는 명선이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 전쟁의 비극성과 비 인간성을 고발하고 있다.
- 17 들꽃은 연약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던 명선이를 상징하지만, 그 생김새가 유사한 것은 아니다.
- 18 먼지 속에 뿌리를 내린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쥐바라송쑥은 전쟁 상황에서 보호자 없이 홀로 생존해 나가는 명선이를 상징한다.
- 19 '나'는 명선이가 숨겨 둔 금반지를 발견한 순간 명선이에게 일어났던 일이 금반지 때문이었음을 깨닫고 놀랍고 두려워서 금반지를 떨어뜨린 것이다.

튼튼! 만점 도전 문제

30~33쪽

- 01 ⑤ 02 ④ 03 ② 04 ③ 05 명선이는 자신이 금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가 알게 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 06 ⑤ 07 ⑤ 08 (나) 09 ⑤ 10 ②
- 11 ⑤ 12 ② 13 ⑤ 14 ② 15 ③
- 16 (가)-한국 전쟁, (나)-개화기 17 ③ 18 숙부는 명선이가 가진 금반지를 빼앗기 위해 명선이를 죽이려 한 것이다. 이런 행동은 전쟁의 비극성과 비인간성을 잘 보여 준다.

- 01 이 글은 서술자가 어린 시절 경험한 전쟁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며 전달하고 있다.
- 02 (라)에 따르면 명선이의 숙부가 명선이를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명선이가 숙부에게서 도망친 것이다.
- 03 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명선이를 '나'의 어머니는 차갑게 쫓아내려 하며, 숙부는 죽이려 했었다.
- 04 포성, 피란민, 전쟁, 피란길, 공습, 폭탄 등의 단어를 통해 이 글이 전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5 명선이는 자신이 금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숙부가 자신을 죽이려 한 이유를 말하지 않은 것이다.
- 06 '나'가 주머니를 열어 보기 전 긴장 때문에 손을 떼는 것은 내용을 어렵게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내용물을 확인한 '나'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 07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전쟁의 비극성과 비인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 08 제시된 설명은 복선에 대한 것이다. (나)에서 쥐바라송쑥이 강으로 떨어지는 장면은 명선이가 강물에 떨어져 죽게 될 것을 암시하는 복선이다.
- 09 (가)~(다)는 소설 구성 단계상 '절정'에 해당한다. 절정 단계에서는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긴장감이 극대화된다. ①은 결말, ②는 위기, ③은 전개, ④는 발단 단계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10 (다)는 명선이와의 첫 만남이고, (가)는 우리 집에서 살게 된 명선이가 두 번째 금반지를 건네는 상황이다. (마)는 그 후 아버지가 명선이의 금반지를 빼앗으려 하는 상황이고, 이어서 명선이가 여자임이 밝혀진 (라)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나)에서 명선이가 다리에서 떨어져 죽음을 맞이한다.
- 11 (가)의 첫 문장을 통해 '나'의 어머니는 명선이를 구박하였으며, 명선이는 '나'의 집에서 계속 살기 위해 어머니에게 금반지를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 12 '나'는 금반지의 행방을 알아내라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명선이와 붙어 지내면서 점차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친해지게 된다. 그러나 '나'가 금반지 때문에 명선이를 좋아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13 ㉠, ㉡, ㉢, ㉣은 모두 명선이를 의미한다. 명선이를 가리키는 것은 '도둑'이 아니라 '도둑처럼 살그머니 남기고 간 선물'이다.
- 14 [A]에서 아버지는 본심을 숨긴 위선적인 말로 명선이를 회유하며 금반지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
- 15 (가)는 소설이고 (나)는 시나리오이다. 소설과 시나리오는 모두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꾸며 낸 이야기이다.
- 16 (가)는 피란길, 공습 등의 표현을 통해, (나)는 옛날 옷차림과 신식 옷차림이 공존하고, 신분제가 사라졌으나 사람들의 인식은 변하지 않은 모습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 17 명선이가 상대방 밑에 깔렸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여 벗어나는 것은 피란길에서 어머니의 시체 밑에 깔렸던 기억 때문이다.
- 18 <보기>를 통해 명선이가 재물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따라서 숙부가 명선이의 재물을 빼앗기 위해 명선이를 죽이려 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시험에 꼭! 나오는 서술형

34~35쪽

- 01 '나'는 순진하고 소극적인 반면, 녀석은 겁이 없고 대담하며 뻔뻔하다.
- 02 인간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가 더 중시되었다. /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비인간적으로 변해 갔다.
- 03 ㉠과 ㉡은 명선이가 여자아이임을 암시하며, 녀석이 사내아이인 척 행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녀석은 전쟁 상황에서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 04 녀석을 차갑게 내쫓으려다가 금반지를 보고 태도를 바꾸는 어머니의 모습이나 금반지를 빼앗으려 혈안이 된 부모님의 모습에서 금반지는 어른들의 탐욕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나'의 집에 살기 위해 금반지를 꺼내 보이는 녀석의 모습에서 금반지는 녀석의 생존 수단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 05 순진한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서술함으로써 어른들의 탐욕과 비인간성이 부각되어 전쟁의 비극성이 강조된다.
- 06 작품 전체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작품을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 07 '쥐바라송꽃'과 명선이는 위험하고 이슬아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다.
- 08 강물에 떨어진 들꽃처럼 명선이가 강에 떨어져 죽을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의 기능을 한다.
- 09 비행기 폭음에 놀란 명선이가 강으로 떨어져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 10 주머니에 든 것은 어른들이 그렇게 찾으려 했고, 명선이가 위험에 빠지면 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금반지였기 때문에 너무 놀랍고 두려운 나머지 당황하여 떨어뜨렸다.
- 11 명선이의 죽음의 직접적 원인은 비행기의 폭음이지만, 근본적 원인은 전쟁의 잔혹성과 어른들의 탐욕이다.
- 12 제목은 전쟁 상황에서 들꽃처럼 살다 간 명선이를 잊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가는 전쟁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거나 비인간적으로 변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비극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01 '녀석(명선이)'은 겁 없는 눈빛으로 '나'에게 접근하여 '나'의 집으로 가져와 요구하는 대담하고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나'는 그런 녀석의 태도에 놀라 어물거리며 녀석의 말에 따르는 순진한 모습을 보인다.

- 02 (나)와 (다)에는 전쟁 때문에 비인간적으로 변한 사람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 03 소설에서는 '곰살스러운 얼굴에 꼭 계집애처럼 생긴 녀석', '계집애처럼 간드러진 소리' 등의 표현을 통해 녀석이 여자아임을 암시하고 있다.
- 04 금반지는 전쟁 상황에서 명선이가 혼자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이자, 어른들의 탐욕을 드러내는 소재이며, 명선이와 어른들이 갈등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 05 어린 '나'의 시각으로 그려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어른들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부각할 수 있다.
- 06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하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 07 쥐바라송꽃은 끊어진 다리 위의 먼지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명선이는 전쟁 상황에서 홀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 08 명선이가 관심을 보였던 쥐바라송꽃이 강으로 떨어지는 장면은 앞으로 명선이 또한 그렇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이다.
- 09 쥐바라송꽃은 명선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은 명선이가 강으로 떨어져 죽었음을 의미한다.
- 10 명선이는 금반지에 눈독을 들이는 어른들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했는데, 금반지를 빼앗기 위해 명선이를 위협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본 '나'로서는 명선이가 숨겨 둔 금반지를 확인하는 순간 놀라고 두려웠을 것이다.
- 11 명선이는 갑작스러운 비행기 소리에 놀라 다리에서 떨어져 죽었지만, 명선이가 위험한 다리 위를 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탐욕스러운 어른들 때문이었으며 어른들이 탐욕스럽게 변한 이유는 전쟁 때문이다.
- 12 이 작품은 전쟁 상황에서 홀로 생존해 나가는 명선이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비극성을 보여 준다.

(2) 통일 시대의 국어

시험에 꼭! 나오는 학습 활동

37쪽

01 ㉡ 02 ㉡ 03 ㉡ 04 ㉡

- 01 대화에서 철수는 '여성, 연애결혼'이라고 발음하는데, 영희는 이를 '녀성, 련애결혼'이라고 발음한다. 남한에서는 두음 법칙에 따라 '르'와 '녀, 뇨, 뉴, 니'가 단어의 첫소리에 나타나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소리가 단어의 첫소리에 나타난다.
- 02 남북한 언어에서 문장 부호는 일부 차이는 있으나, 북한에서도 문장 부호를 사용한다.
- 03 제시된 표를 통해 남북한에서 동일한 대상을 다른 어휘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04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여, 둘 중 한 나라의 언어로 통일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계속 협의하며 차이를 줄여 나가야 한다.

또또! 나오는 문제

38쪽

01 ① 02 오랜 세월 동안 서로 교류 없이 분단된 채 살아왔기 때문이다. 03 ⑤ 04 남한에서는 'ㄹ'과 'ㄴ'이 단어의 첫 소리에 나타나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이러한 소리가 단어의 첫 소리에 나타난다. 05 ⑤ 06 ③

- 01 분단 이후에 어휘의 차이가 생기는는 하였지만 이것이 사전 편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 02 남북한은 분단 이후 오랫동안 서로 교류하지 않고 살아오면서 언어의 발음, 표기, 어휘 측면에서 차이가 생겼다.
- 03 남한 말은 영어 발음을 그대로 한글로 표기한 외래어를 사용하는 반면 북한 말은 이를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남한 말이 북한 말에 비해 외래어 사용 비중이 높음을 보여 준다.
- 04 '여성(女性), 념원(念願), 연애(戀愛), 열차(列車)'의 남한 표기는 '여성, 염원, 연애, 열차'이다. 이는 남한에서는 발음과 표기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 05 제시된 기사에서 남한 말과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말은 나타나지 않는다. ①은 '마라손애호가들의', '통일마라손대회', '평양시안의' 등에서, ②는 '기발'에서, ③은 남한 말로는 '마라톤'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마라손'으로 표기하는 것에서, ④는 '진행되었다'에서 알 수 있다.
- 06 남북한의 언어는 본질적으로 같은 언어로, 차이가 있어도 방언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튼튼! 만점 도전 문제

39~40쪽

01 ㉠-동질성, ㉡-이질성 02 ③ 03 ② 04 ①
05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어휘의 형태가 다르다. 06 ④
07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08 ② 09 ④ 10 남북한 언어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11 ④ 12 ② 13 서로가 쓰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 01 남북한 언어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언어이므로 서로 사용하는 말과 글이 크게 다르지 않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만, 분단 상황이 오래 지속됨에 따라 발음이나 어휘 등에서 이질성을 갖게 되었다.
- 02 남한은 두음 법칙에 따라 발음하고 표기하는 반면 북한은 두음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 03 '남녀'는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는 말이 아니므로 북한에서도 '남녀'라고 표기한다.
- 04 남북한은 외래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 어휘의 차이를 보인다. 남한에 비해 북한은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05 가리키는 대상은 같지만 형태가 다른 말이다.
- 06 ㄱ. '랭면'과 '류별난'에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ㄴ. '평양랭면맛은', '비길테', '독특하기때문이다', '그우에' 등에서 남한에 비해 단어를 붙여 쓰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ㄷ. '우(위)와 '닭알(달걀)'에서 같은 뜻을 지닌 단어의 형태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 07 남한에서는 '코병'을 '콧병'으로, '표말'을 '뽏말'로 표기한다. 이는 사이시옷을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 08 남한에 비해 북한은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모든 외래어를 다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 09 남북한의 언어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언어로, 남북한이 본래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 10 제시된 자료는 『겨레말 큰사전』의 내용 일부로,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통일 후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이 의사소통 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일 수 있다.
- 11 달걀과 닭알은 동일한 대상을 다른 어휘로 표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12 북한 말 '일없다'는 남한 말로 괜찮다는 뜻이다.
- 13 북한 학생이 쓴 어휘의 의미를 남한 학생이 정확하게 몰라서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겼다.

시험에 꼭 나오는 서술형

41쪽

- 01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큰 문제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이 함께 써 온 언어의 뿌리가 깊어 서로 사용하고 있는 말과 글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 02 남한은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발음하지만, 북한은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 03 남한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만, 북한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 04 북한 학생이 쓴 어휘의 의미를 남한 학생이 몰라서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겼는데, 이는 남북한이 오랜 세월 동안 서로 교류 없이 분단된 채 살아와서 언어에 차이가 생겼기 때문이다.
 - 05 남한은 영어 발음을 그대로 한글로 적어서 사용하는 반면 북한은 영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06 남북한 말을 정리하여 사전을 편찬한다. 교육,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 간의 교류를 확대해 간다.
-
- 01 남북으로 분단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같은 말과 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류가 많지 않았어도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다.
 - 02 철수는 '여성, 연애결혼'이라고 발음하는데, 영희는 '려성, 런애결혼'으로 발음하고 있다. '르'와 '녀, 뇨, 뉴, 니'가 단어의 첫소리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03 '기발'을 남한에서는 '깃발'이라고 표기한다.
 - 04 남한과 북한은 오랫동안 교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언어의 발음, 표기, 어휘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이 때문에 의사소통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05 남한에서는 외래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반면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06 『겨레말 큰사전』과 같이 남북한이 공동으로 사전 편찬 사업을 진행하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다.

대단원 종합 문제

42~45쪽

- 01 ② 02 ⑤ 03 어머니는 녀석을 차갑게 내쫓으려 하다가 녀석이 내민 금반지를 보고 반가워하고 있다. 04 ②
- 05 ⑤ 06 ② 07 ④ 08 전쟁 때문에 식량이 귀해지면서 인심이 각박해졌다. / 인간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가 더 중시되었다.
- 09 ④ 10 금반지를 빼앗기 위해 명선이를 죽이려는 숙부의 모습이나 금반지의 가치와 명선이를 보살펴 준 값을 비교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금반지는 어른들의 탐욕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나'의 집에서 계속 살기 위해 금반지를 꺼내 보이는 명선이의 모습에서 금반지는 명선이의 생존 수단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11 ④ 12 내가 본 것은 강심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는 한 송이 쥐바라송이꽃이었다.
- 13 ③ 14 ③ 15 작가는 전쟁의 비극성과 비인간성을 알리려고 하였다. 16 ② 17 ② 18 ④ 19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며 수용하는 태도를 지낸다. 20 ①

- 01 (라)의 “사나새끼가 똑 지집맹키로 야들야들허게 생긴 것이……”에서 어머니가 녀석을 남자아이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2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서술함으로써 어른들의 탐욕과 비인간적인 모습을 부각하고, 전쟁의 비극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03 녀석이 내민 금반지를 보고 녀석을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다.
- 04 사투리의 사용과 사건 전개 of 필연성은 관련이 없다. 사건 전개의 필연성은 주로 복선이나 자연스러운 인과 관계를 통해 부여된다.
- 05 ㉠은 녀석에 대한 '나'의 묘사로, 녀석이 여자아이임을 암시한다.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06 이 글은 주변 인물이 주인공을 관찰하여 전달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다.
- 07 숙부가 명선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명선이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숙부에게서 도망쳐 나온 것이다.
- 08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를 통해 전쟁 때문에 먹고살기 어려워 인심이 각박해진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09 (가)에서 명선이는 숙부에 대한 '나'의 질문에 대답해 주지 않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10 이 글에서 금반지는 명선이의 생존 수단이자, 어른들의 탐욕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11 명선이가 부서진 다리 위에서 위험하게 논 것은 다리 끝의 철근 끝자락에 금반지가 든 주머니를 숨겨 놓았기 때문이다.

- 12 (라)에서 명선이의 죽음을 쥐바라송꽃이 강물로 떨어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 13 제시된 설명은 복선에 대한 것으로, (다)에서 명선이가 관심을 보였던 쥐바라송꽃이 바람에 날려 강으로 떨어지는 장면은 명선이의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볼 수 있다.
- 14 명선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이다.
- 15 작가는 전쟁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거나 비인간적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비극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 16 남한과 북한은 각각 언어 순화 작업을 시행하였음에도 전체 어휘와 어문 규범에서 80퍼센트 정도 같다고 하였다.
- 17 북한이 남한과 달리 두음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은 맞지만, 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18 남한과 북한에서 '일없다'가 다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긴 것이다. 이는 북한의 외래어 순화와 무관하다.
- 19 남북한 언어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기거나 서로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언어의 차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20 도넛은 'doughnut'을 발음대로 수용한 것이고, 가락지빵은 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한 것이다. ②, ⑤ 동일한 외래어를 다르게 표기한 것이다. ③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다른 것이다. ④ 두음 법칙 적용 여부가 다른 것이다.

SPEED 핵심 정리

46~49쪽

1. 나를 키우는 힘

- 01 가치관 02 정보화, 긍정적, 부정적
 03 부정적, 카드 04 타당성, 적절성 05 부정적
 07 목적 08 소, 소개, 그림, 소, 의미 09 사냥, 재산, 밀레, 비극, 고통, 폐자전거, 고정 관념 10 내용, 생략, 중심 내용, 주제, 의도, 목적
 11 효율적

2. 세상을 비추는 문학과 언어

- 12 생명력 13 1, 관찰자, 어린아이 14 한국 전쟁
 15 인심 16 금반지, 들꽃, 죽음, 만경강, 개매 17 생명력
 18 비행기, 탐욕 19 이방인 20 여운 21 명선이
 22 금반지, 어머니, 공습 23 신분제 28 깃발, 단어 29 낙지
 30 연락

FINAL TEST 1회

50~54쪽

01 ⑤	02 ⑤	03 ⑤	04 ③	05 ④
06 ⑤	07 (다)	08 (다)	09 ④	10 ④
11 ④	12 ②	13 ③	14 ②	15 ③
16 ③	17 ④	18 ②		
19 전쟁의 비극성 / 전쟁의 참혹함			20 ①	21 ③
22 ⑤	23 ③	24 ⑤		

- 01 (가)와 (나) 모두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02 (가)는 정보화가 삶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예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03 (나)는 정보화 기기를 많이 소유할수록이 아니라, 소유한 정보의 양이 많고 질이 높을수록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 04 (가)는 정보화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ㄱ과 ㄹ이, (나)는 정보화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ㄴ과 ㄷ이 해당한다.
- 05 피카소는 폐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을 이용하여 황소의 머리 형상을 한 작품을 만들었다.
- 06 (나)에서 구석기인들이 소에 주술적 의미를 부여했음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들소 자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 07 이 그림은 밀레가 그린 「송아지의 탄생」이다.
- 08 농촌을 배경으로 소를 그린 그림을 설명한 단락은 (다)이므로, 이는 (다)를 읽을 때 이루어지기에 적절한 읽기 중 활동이다.
- 09 글의 주제와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읽기 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 10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하며 사건을 전개하는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 11 피란민들은 남쪽으로 가기 위해 서술자가 사는 마을에 머물렀다가 다시 길을 떠난 것이다. 인심 좋은 마을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다.
- 12 '남포'는 다이너마이트를 의미하는 말로, 포성을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 13 (다)의 '만경강 다리'라는 표현은 사건 전개 사실성과 현장감을 높이고 명선이가 남쪽으로 내려가려는 피란민 무리와

함께 마을에 들어오게 되는 사건에 설득력을 부여하는 효과를 낸다.

- 14 ㉠은, 한 시골 마을에 있는 다리일 뿐인 ‘만경강 다리’가 서술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긴 다리였음을 의미하는 말로, 서술자가 세상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였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15 어머니가 명선이를 보살펴 주는 태도를 보인 것은 명선이가 금반지를 주었기 때문이지 명선이가 전쟁고아라는 처지를 이해해서가 아니다.
- 16 사투리의 사용과 인물의 성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 글에서 어른들의 탐욕은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17 어머니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밥 얻어먹는 설움이 심해지는 것이 처음에 준 반지의 효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 생각하여 새로운 반지를 내민 것이다.
- 18 이 소설에서 금반지가 ‘나’와 명선이를 돈독하게 하는 역할을 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19 작가는 전쟁으로 인해 탐욕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변해 가는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비극성을 알리려 하였다.
- 20 ‘나약’은 남북한 모두 ‘나약’으로 발음한다. ② 녀성:여성 ③ 로동:노동 ④ 련차:열차 ⑤ 련원:염원
- 21 ‘볼펜’의 북한 말은 ‘원주필’이고, ‘일없다’의 남한 말은 ‘괜찮다’이다.
- 22 남한에서는 외래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반면, 북한에서는 말다듬기 운동을 벌여 외래어를 우리말로 다듬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생기게 되었다.
- 23 남한과 북한은 분단 이래 각각 언어 순화 사업을 진행해 왔고, 이로써 남북한 언어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 24 제시된 자료에서 남한과 북한이 동일한 어휘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①은 ‘진행되었다’에서, ②는 ‘기발’에서, ③은 ‘마라손’에서, ④는 ‘마라손애호가들’, ‘참가필에’, ‘통일마라손대회’, ‘평양시안’ 등에서 알 수 있다.

FINAL TEST 2회

55~59쪽

- 01 ① 02 ② 03 ④ 04 정보화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과 국가, 사회가 모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05 ① 06 ③ 07 ② 08 미술 작품 속에 소개된 소의 다양한 의미 09 ④ 10 ② 11 ⑤ 12 ②
- 13 어른들의 탐욕을 순진한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묘사함으로써 전쟁이 초래하는 비인간성과 비극을 효과적으로 제시한다.
- 14 끊어진 만경강 다리 15 ⑤ 16 ⑤ 17 ④
- 18 연약하지만 들꽃 같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던 명선이를 잊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19 ② 20 ② 21 ②
- 22 ⑤ 23 교육,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 간의 교류를 확대한다.

- 01 <보기>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를 것이라는 점을 비판하고 있는 (가)에 추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02 이 글은 정보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으나, (마)의 첫 문장 ‘현재 우리는~편리를 누리게 되었지만’에서 정보화의 영향으로 생활의 편리를 누리게 되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 03 <보기>는 카드 뉴스로, 내용을 장면으로 나누어 전달하기 때문에 논설문의 형식을 띤 이 글에 비해 내용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카드 뉴스는 간결한 표현과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빠르고 인상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 04 글쓴이의 궁극적인 주장은 (마)에 나타나 있다.
- 05 차례를 훑어보는 것은 읽기 전 과정에 해당하며, 읽기 전 과정에서 읽기 목적을 확인하고 글의 내용을 예측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 06 <보기>는 글을 읽으며 읽기 전에 예측했던 내용과 실제 내용을 비교해 보는 활동이다.
- 07 (다)를 읽으면서 이와 같이 생략, 압축된 내용에 관해 더 찾아 보겠다는 사고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
- 08 이 글은 소와 관련된 미술 작품을 소개하며 미술 작품 속에 나타난 소의 다양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09 이 글은 명선이를 주인공으로 하여 명선이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작중 인물인 ‘나’의 시선에서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 10 정님이가 명선이와 한방을 쓰기 싫어하는 것은 정님이가 속물적이어서라기보다는 명선이를 남자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 11 (나)에서 명선이는 숙부가 널 죽이려 한 이유가 뭐냐는 '나'의 질문에 갑자기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
- 12 (나)로 볼 때, 명선이는 다른 사람 밑에 깔리면 어머니의 시신 밑에 깔렸던 기억이 떠올라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 괴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 14 폭격으로 끊어진 채 위태롭게 방치되어 있는 만경강 다리는 전쟁의 파괴성, 참혹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비행기 공습으로 부모를 잃고 위태롭게 지내는 명선이의 처지를 상징한다.
- 15 명선이는 위험한 다리 끝에서 놀던 도중 비행기 폭음에 겁을 먹고 놀라 강물에 떨어져 죽음을 맞으므로, 명선이의 죽음의 직접적 원인은 '비행기의 폭음'이라 할 수 있다.
- 16 '나'는 철근 끝자락에서 금반지가 담긴 주머니를 발견하는데, 이것은 명선이가 '나'에게 선물로 주려고 남겨 놓은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금반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찾기 힘든 곳에 숨겨 놓은 것이다.
- 17 명선이가 반지를 숨긴 곳은 부서진 다리의 철근 끝자락인데, 이는 명선이가 부서진 다리에 자주 놀러갔다는 것에서 암시되고 있다. ㉠과는 관련이 없다.
- 18 '들꽃'은 명선이를 의미하고, '기억'은 서술자가 나이를 들어서도 명선이를 잊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 19 철수는 '여성, 연애결혼'이라고 발음하는데, 영희는 이를 '녀성, 련애결혼'으로 발음하고 있다. 철수의 발음처럼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소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나타나지 않는 것을 두음 법칙이라고 한다.
- 20 <보기>의 의사소통 장애 상황은 '일없다'라는 어휘에 대한 남북한의 의미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이는 남북한의 언어 순화 사업과는 무관하다. 언어 순화 사업은 일본어 잔재나 외래어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일없다'는 남북한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어휘이다.
- 21 (가)는 남북한의 어미 표기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진행되었다'를 남한의 표기법에 따라 적으면 '진행되었다'이다. ㉡, ㉢ 남북한의 표기 방식이 동일하다. ㉣ 외래어 표기, 띄어쓰기에 차이가 있다. ㉤ 사이시옷 표기에 차이가 있다.
- 22 남한 말에서 '디펜스'에 해당하는 북한 말은 '방어수'이다.
- 23 <보기>는 남북한이 오랜 세월 서로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언어의 이질성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FINAL TEST 3회

60~64쪽

- 01 ③ 02 ④ 03 이성적 설득 04 ③
 05 ① 06 ⑤ 07 ① 08 ④ 09 밀레의 그림은
 소가 당시 농가의 귀중한 재산이었음을 보여 준다. 10 ②
 11 ② 12 ② 13 ③ 14 '물건'은 어른들이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명선이가 위험에 빠지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금반지'가 든 주머니였기 때문에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떨어뜨렸을 것이다.
 15 ④ 16 ① 17 ⑤ 18 ③ 19 ④
 20 ③ 21 ① 22 ① 23 ㉠: 외래어, ㉡: 고유어

- 01 (가), (다), (마)는 정보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나), (라)는 정보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 02 (가), (나)는 모두 현재 상황을 과거와 대조하면서 부각하고 있다.
- 03 (가)~(마)는 모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 04 (다)와 같은 카드 뉴스 형식은 독자의 흥미를 끌기 쉽고 핵심 내용을 빨리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내용이 간결하게 제시되어 배경지식이 적은 독자는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05 글을 읽을 때에는 글 읽기 목적을 고려해서 그에 어울리는 읽기 방법을 생각하며 읽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06 (나)~(라)에서 대조의 설명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 07 글을 읽다가 예측했던 내용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측과 다른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면 된다. 읽기 목적을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는 없다.
- 08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은 읽기 후 과정에 해당하는 점검 내용이다.
- 09 ㉠의 읽기 목적을 고려할 때, 밀레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소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요약해야 한다.
- 10 이 글은 소설로, 인간 삶의 진실성을 밝혀내기 위해 작가가 상상력을 동원하여 창조한 허구의 세계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소설을 읽으면서 작품 속 사건이 사실인지 여부를 따져가며 읽는 것은 적절한 감상 방법이 아니다.
- 11 (나)에서 '나'의 반응으로 보아 '나' 또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명선이를 남자아이로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12 (라)에서 들꽃(취바라송꽃)이 강심으로 떨어지는 장면은 명선이 또한 그렇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문학적 장치이다.
- 13 어른의 시선을 통해 아이들의 세계를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아이의 시선에서 어른들의 세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전쟁의 참상, 비극성과 비인간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15 (가)는 소설이고, (나)는 시나리오이다. 소설과 시나리오는 모두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 16 ㉠은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면서 피란민들이 마을을 많이 찾는 이유를 알려 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사회·문화적 배경과는 거리가 멀다.
- 17 어른들은 집 안에 없어드는 물건이 생기거나 굶주린 어린이들을 앞세워 식량을 애원하기 때문에 피란민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어린이들은 피란민들이 세상의 저쪽 끝까지 가려는 사람들같이 자유로워 보여서 부러워한다.
- 18 사람들이 ‘베이스볼’을 배우기 위해 모인 것에서 당시에 새로운 문물에 관심을 지닌 이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전통 문화를 미개하게 여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 19 ‘다만 분단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어휘나 새로 들어온 외래어와 같은 어휘를 다른 뜻으로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라고 한 것에서 분단 이후 각각 새롭게 만들어진 어휘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20 ‘마라톤’과 ‘마리손’은 동일한 외래어를 남북한이 다르게 표기한 예에 해당한다.
- 21 ‘동무’는 남한에서는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데 비해 북한에서는 혁명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사람을 친근하게 이르는 말이나 일반적으로 남을 친근하게 부르는 말로 쓰인다. ② 북한 말로 ‘꼬부랑국수’ ③ 남북한에서 형태와 의미가 같음. ④ 북한 말로 ‘곽밥’ ⑤ 북한 말로 ‘기름밥’
- 22 ‘기밭’을 남한에서는 ‘깃밭’이라고 표기한다. 이는 북한과 달리 사잇소리를 표기에 반영하는 것이다. ② ‘개막식’은 남북한의 의미가 동일하다. ③ ‘참가하였다’는 남북한의 표기가 동일하다. ④ ‘남녀’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어휘이다. ⑤ 북한은 남한과 달리 단어를 붙여 쓰는 경우가 많다.
- 23 리본과 노크는 모두 외래어이고, ‘맹기’는 고유어, ‘손기척(손+기척)’은 고유어를 합성한 말이다.

